

# 상식 뛰어넘은 과감한 투자... 세계 CMO 50%점유 목표

(위탁생산)

## SAMSUNG 삼성의 미래

### 4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공장 3곳 가동  
36.2만 리터 생산능력 보유  
제약사 24곳과 CDMO 계약  
글로벌 제조승인 19건 획득



삼성바이오페스 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페스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페스

삼성 신성장동력 사업의 하나로 꼽히는 '바이오 산업'을 위해 글로벌 CMO(위탁생산) 기업 중 가장 큰 생산규모를 갖추고 바이오시밀러의 개발과 상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2년 취임 직후 바이오, 의료 등 신사업 관련 관계사와 협력을 만나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등 바이오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삼성은 지난 2010년 '5대 신수종 사업'을 발표하며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이후 2011년 2월 글로벌 제약서비스 기업인 키타일즈와 3000억원 규모의 합작사를 설립하고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에 진출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당시 국내에서 바이오사업은 생소한

분야였지만 삼성은 바이오 의약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반도체·화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조 경쟁력을 증명해 온 삼성이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글로벌 톱'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삼성은 합작사 설립 발표 이후 이사회를 통해 회사명을 삼성바이오페스로 정했다.

그 후 삼성바이오페스는 2011년 5월, 1공장 착공식을 열고 인천 송도에 3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계약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첫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끊임없이 접촉했고, 2013년 7월 당시 글로벌 바이오제약 분야의 톱기업 중 하나였던 미국의 BMS와 첫 생산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10월에는 스위스의 로슈와 생산 계약을 체결

하며 수주를 본격화했다.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삼성바이오페스는 2013년 2공장 착공에 나서 당시 업계 최대 수준인 15만리터로 건설해 2016년 2월부터 시생산을 시작했다.

이어 2015년 11월 18만리터 규모의 3공장 착공에 돌입했고 지난달 1일 생산에 들어갔다.

현재 단일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공장인 3공장까지 완공되면서 삼성바이오페스는 총 36만2000리터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최고 CMO 기업으로 성장했다.

1공장은 규모가 적어 흑자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를 딛고 착공한 지 4년8개월 만인 2016년 1분기 업계 최단기로 흑자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매출 4598억원에 영업이익자 630

억원을 달성하며 첫 연간 영업흑자를 기록했다.

이러한 질적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삼성바이오페스는 지난 2016년 11월 10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분야에서 제넨텍에 이은 역대 2위, 2016년 기준 전 세계 기준 6위, 아시아 기준 3위 규모였다. 특히 해외기관투자자 초과청약이 중국의 알리바바를 넘어선 17배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CMO사업에 이어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기본 틀이 되는 세포주 개발과 대량생산을 위한 프로세스 등을 개발하는 CDO(위탁개발)사업에도 본격 진출했다.

삼성바이오페스는 현재까지 24개 제약사와 총 33종의 제품에 대한 CDMO(위탁개발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품질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제조승

인 총 19건을 획득했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페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본격화되며 자산가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성바이오페스는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2012년 2월 삼성바이오페스와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으로 설립됐다.

이후 인천 송도에 R&D센터를 구축해 독자적 기술 역량 개발과 더불어 글로벌 제약사인 미국의 머크, 바이오젠과의 마케팅 파트너십 체결로 유럽, 미국 등 선진 의약시장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현재까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인 '엔브렐', '레미케이드', '휴미라', '허셉틴' 등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다.

삼성바이오페스는 지난 3분기까지(1~9월) 유럽에서 4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바이오시밀러 베네팔리와 플라사비는 유럽에서 3억8910만달러(439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지난 2017년 연간매출(3억7980만 달러)를 3분기 만에 초과 달성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아시아 최대 다국적 제약회사인 일본 다케다 제약과 급성 췌장염 신약 공동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페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로 쌓아온 연구개발 역량을 향후 신약 개발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세훈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 '모바일 혁신' 폴더블폰 내년 출시... 삼성주가 상승 기대감

애플 아이폰 대비 경쟁 우위 기대  
증권사, 1년 목표주가 6.1만원 예측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폴더블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은 2007년 아이폰 출시 이후 10년만에 이뤄지는 모바일 혁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애플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다. 주요 10여개 증권사는 삼성전자 12개월 목표주가를 평균 6만1000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8일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50포인트(0.11%) 상승한 4만40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장 중에는 2% 가까이 오르며 강세장을 연출했다. 7일(현지시간)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 2018(Samsung Developer Conference 2018)'에서 삼성전자의 '폴더블(foldable·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 공개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가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에 공개한 폴더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의 하드웨어 혁신을 보여줬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내년부터 확실한 기술력을 증명해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증권 주가는 액면분할 전보다 하락한 상태다. 반도체 빅사이클에 대한 세계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삼성전자의 실적 감소가 예상되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 폴더블폰 공개를 통해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KB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은 2019년 300만대에서 2022년 500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유일하게 폴더블폰 핵심 부품의 공급망을 삼성플래이 중심으로 내재화하고 있어 D램과 같이 독점적 시장지위 확보가 가능하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2019년부터 프리미엄 스마트 폰 시장의 생태계가 삼성의 폴더블폰 중심으로 재구축된다면 향후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 폰 시장에서 애플 대비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동

(주요 증권사 삼성전자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원)
유안타증권	76,000
IBK투자증권	66,000
미래에셋대우	63,000
현대차증권	63,000
키움증권	62,000
BNK투자증권	60,000
KTB투자증권	58,000
신영증권	56,000
한국투자증권	55,000
KB증권	52,000

/각 사 리포트

시에 주식시장에서도 삼성전자 '롱'(long·매수), 애플 '숏'(short·매도) 포지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